

1. 선교지 소식과 기도제목

▷엘 살바도르 단기선교: 이번주에 엘 살바도르 인카운터 1기가 진행됩니다. 함께 기도해주세요.

2. 단기 선교 일정과 모집 안내

▷CUBA AFA 9기 / 신학교 입학식: 2/4-2/11, S/L: 한기홍 목사, 력터: 박성배 안수집사, 문의: 로이김 안수집사 (213.999.1737)

▷CUBA AFA 9기: 2/4-2/11, S/L: 한기홍 목사, 력터: 박성배 안수집사, 문의: 로이김 안수집사(213.999.1737)

▷동남아 전도폭발 임상훈련 및 개척선교(태국): 2/9-2/18, 팀장: 이민 전도사(714.476.5910), 리더: 최윤정 장로, 문의: 양소현 권사(714.319.3777)

▷은혜동산 말씀축제: 2/18-2/25, S/L: 한기홍 목사 장소: 강원도 치악산 명성수양관, 강사(목사): 한기홍, 조봉희, 최광, 장순직, 송태근, 유재명, 손경민, 허남일, 문의: 이정호 안수집사 (213.500.7939), 팀멤버미팅: 웨딩채플, 저녁 6시30분, 2/1(목), 2/8(목), 2/13(화-108호)

▷인도 TD 8기 (GIGL#8) / 신학교 입학식: 2/23(금) -3/1(금), S/L: 한기홍 목사, ASST.S/L: 사무엘 한 목사, 력터: 오수열 피택장로, 팀멤버모임: 1/9(화)-2/20(화) 매주 화요일 7PM, VC 웨딩채플, 팀멤버 FEE: \$700 + 항공료, 문의: 최윤호 피택장로 (714.357.7149), 박혜숙 전도사 (714.388.2896), 항공료 관계로 속히 신청바람

▷CIS (구소련) 목회자 세미나 및 협의회: 장소: 튀르키예 이스탄불, 3/10-3/16, S/L: 한기홍 목사, 준비위원장: 장영호 장로 (714.414.8601), 팀멤버모임: 2/5-3/4, 매주 월요일 7:00-9:30PM, VC 108, 문의: 권팔암 안수집사(714.726.2303), TM/FEE: \$700

▷제5기 히말라야 인카운터: 3/16-3/24, S/L: 김동철 목사, 문의: 조 제이슨 안수집사 (213.905.0636)

▷그리스 난민 인카운터 5기 및 사도바울 2차 전도여행 성지순례: 3/31-4/9, S/L: 설성훈 목사, 디렉터: 김태형 안수집사 (213.393.3215), 문의: 케빈김 안수집사(213.272.5984), 오리엔테이션: 2월 6일 오후 7시, 장소:108호

3. 온라인 선교지 소식
WWW.YOUTUBE.COM/@GMIMMISSION
WWW.FACEBOOK.COM/GMIMMISSION/



대한예수교 장로회 국제총회
은혜한인교회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GMI 총재: 한기홍 목사)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 446. 6200
gkcgmiousa@gmail.com
www.gmimission.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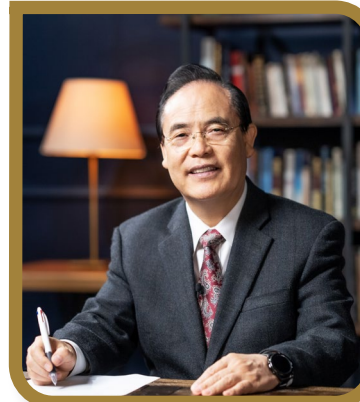
2024년 1월 GMI-GKC 선교사 현황 : 61개국 331명 (자체 파송 79%)

01.28.2024

GRACE 선교소식

2024년도 세계선교 마무리를 향해!

- GMI 총재 한기홍 목사



2024년을 맞이하며 전 세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GMI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에 주님의 크신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금년 새해 표어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며 땅끝까지”입니다. 함께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고 비전이 이루어지며 모두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복된 2024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기홍 목사님 선교일정

▷CUBA AFA9기 (2/4-2/11)
▷은혜동산 말씀축제 (2/18-2/25)
▷인도 GIGL #8 (2/23-3/1)

목사님의 사역 일정들 가운데 영육간의 건강함과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편찮으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과테말라 척재숙 선교사

류마티스 관절염에 별 차도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통을 이겨내고 완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필리핀 박성용 선교사

갑상선 암과 여러 후유증에도 계속해서 사명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정기검진과 건강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남아공 최정미 선교사

트럭에 추돌되는 큰 교통사고로 몸에 통증이 심하고 계속 지켜보는 중에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탄자니아 오종성 선교사

많은 분들의 기도로 허리협착증과 뇌전증의 통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완전한 치료를 위해 계속 기도부탁드립니다.

러시아 주선민 선교사

11살 막내 세아의 왼쪽 다리 성장판 손상으로 척추가 휘고 있고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수술을 해서 다리길이를 늘려주고 있습니다. 왼쪽다리와 척추를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아르헨티나 강지애 선교사

새로운 항암치료제를 투여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회복되어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탄자니아 오호숙 선교사

많은 분들의 기도로 간수치와 건강이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아직 약을 복용하며 검사를 해야하는데 완치되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튀르키예 양창모 선교사

파킨즈병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깨끗함을 받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스웨덴 김명자 선교사

항암치료를 다시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식욕이 없어 체중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열심히 운동하며 힘을 내고 있습니다. 기도해주세요.

장원 선교사

고혈압과 뇌경색 후유증이 온전히 치료되어 속히 선교지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튀르키예 이혜영 선교사

1월 초 정기적으로 CT, MRI 검사 결과, 활동하는 암은 발견되지 않고 천골에 전이된 암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파푸아뉴기니 남영미 선교사

면역력과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어 남은 사역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강건함의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이스라엘 1

- 장OO 최OO 선교사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4년 새해를 시작하는 이 때에 여전히 끝나지 않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인해 마음이 많이 무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 연말에는 메시아닉 청년들, 군인들과 함께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맛있는 음식, 찬양과 말씀 나눔, 그리고 게임을 통해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시간

을 가졌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이사야 40:1 말씀을 이곳에서 지난 2 달 간 조금씩 실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에 저희 가족이 이스라엘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유대인 친구들에게 많은 힘과 격려가 되었습니

다. 우리 가족이 할 수 있는 건 너무나 미약하지만 주님은 저희들을 주님의 위대한 일에 작은 퍼즐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특히 아내를 통해 유대인 사역자 사모들과 교제하게 하시고 그들의 지친 마음을 함께 위로하고 품게 하셨습니다.

저희 아이들 역시 메시아닉 유대인 학생들 및 군인들과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며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며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하루 속히 잘 마무리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군인들과 인질들 그리고 가자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며 이스라엘 정부 지도자들과 군대 지도자들이 매순간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더불어 전쟁 이후 가자지구에 그들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는 건강한 리더를 허락해달라고 또한 이스라엘 메시아닉 공동체가 영적 각성을 통해 더 깨어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이제는 섬기는 메시아닉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페루

- 최갑순 정미희 선교사

원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통해 새해에는 처음으로 저희 신학생자녀와 프로그램 봉사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갈렙 장학생을 선발하여 1년간 지원하기 위해 지원서를 받고 기도하며 선발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에 함께 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은혜로 인도하실 주님 앞에 페루 동역들과 함

께 엮드려 기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티화나 난민사역을 통해서 싱글맘 그리고 어린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생각한 것만큼 넉넉히 준비하지는 못했지만 어두운 난민숙소에 등을 달아 숙소를 밝게 하듯 어둠 속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마약재활원 성경공부반 제자들 30여명과 함께 세례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두운 이 땅이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 가득한 그날까지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어떤이는 단박에 거절하였고 또 어떤이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떠났으며 어떤이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고 또 어떤이는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우리의 말과 능이 아닌 오직 성령님께서 행하신 일이

기에 묵묵히 주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2024년에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 피난민 구제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신 은혜한인교회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르메니아 피난민들이 사는 상황은 크게 나아진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가운데 오히려 진정한 소망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피난민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삶의 진정한 소망을 발견하는 일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통해 이 땅과 이 민족을 향한

멕시코

- 이종식 선교사

할렐루야! 작년 한해도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곳의 궁핍함을 풍요롭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알바니아

- 오판석 정미라 선교사

2024년을 시작하며 이곳에서의 지난 시간과 사역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현지인 사역자들과 팀사역도 하고 독립적으로 했던 사역들

아르메니아

- 백승환 올라 선교사

주 안에서 안부를 전합니다. 이 땅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주시고 협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르메니아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동

준비하는 삶

<1분단상 123-1월호>

-김대규 장로

스스로에게 반문하기도 하였다.

평소 천국을 소망으로 살아왔는데 이렇다간 세상에 주저앉게 되겠다는 불안감까지 생겼다. 결국 나부터 살아야겠다고 결단하고 사표를 냈다. 주위 사람들은 선망의 직장인데 왜? 만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hite color에서 Blue color의 신세가 되었다. 그 후 그는 친한 믿음의 친구에게 “지금이 행복해. 천국을 바라보고 그 길로 마음 놓고 갈 수 있어서.” 이 전문 경영인은 내세를 바라보며 준비하는 삶을 살고자 한 것이다.

준비하는 삶이란 지금의 현실에서 미래의 목표를 대비하여 성취시켜 나가는 삶을 말한다. 특별하게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충실하되 미래의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의 삶이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현실적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작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며 살았는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이들은 세상살이를 위하여 자기의 명예 또는 권력 아니면 재력이나 건강 등을 목적으로 관리하며 지내 온 것로부터 이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내세를 대비하여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삶을 살아온 이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세상의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내세를 준비 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어 살고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 예이다. 크리스천인 한 40대 중견 전문 경영인의 이야기이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위기가 찾아왔다. 회사사정으로 퇴직하게 된 것이다. 다행히도 동종업계 한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있어 좋은 조건의 대우로 회사를 옮겼다. 바쁜 업무 가운데 대외관계도 맡게 되어 자주 술자리에 있게 되었지만 처음엔 괜찮게 여겼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마음에 갈등이 생겼다. 믿는 자가 이래도 될까 수없이

이와 같이 우리도 현재의 상황이 어찌됐던 간에 오늘의 삶에 충실하면서도 goal은 내세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과거에 준비되었던 모습이나 미래에 계획될 준비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보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이 이 순간 끝난다고 해도 그 삶은 성취된 삶으로 보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장성한 수준에 이르러야하는 성화과정을 걷다가 주 앞에 서게 될 때 영화되어 주를 만나게 된다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속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이요 목표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어야 이를 성취할 수 있게 된다.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생각하고 행동하든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 와 그의 의를 구하여 실천하는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을 살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준비하는 삶의 방법이다.

여기에 가장 기초를 이루는 것이 회개와 기도와 말씀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는 현 실의 삶은 의와 성결과 거룩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속한 것으로 주를 따르려면, 하나님과 동행, 동거하려면, 그리고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려면,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이러한 삶이 현실에 나타나고 있어야 한다. 이런 삶으로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면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준비된 자인 것이다.

그런데 준비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본질을 놓치거나 세속화 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착각하고 있다면 불행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 여기서 말하는 준비(πρόκωπος)는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진지하고 견고하게 대비하는 것을 뜻하는데 과연 우리는 이렇게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깨끗하고 새하얀 세마포 옷을 입을 자신이 있는가?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마24::44). 그렇다. 우리는 깨어 있어 신랑을 맞으려고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다섯 처녀처럼 아니 그 성결한 다섯 처녀가 되어 철저히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신랑 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며 들림 받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현실에서 우리 손에 등과 함께 기름이 넘 처 흐르게 준비되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인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를, 우리를 덮고 있어야 한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자. 깨어 있어 들림을 받아 주와 함께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천성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분명하게 준비하고 있는가를 말이다.